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 인턴 체험기

건국대학교 최나리

지난 6월 30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울지원에서의 두 달에 걸친 체험형 인턴 기회가 주어졌다. 이번에 모집했던 채용형 인턴은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아쉬웠는데, 새로운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을 안고 7월 1일 농협 부천축산물공판장으로 출근했다.

설레는 첫 출근 . . .

서울지원과의 인연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제4회 전국 대학생 한우품질평가대회에 참가하면서 1달 동안 서울지원으로 실습을 다닌 적이 있다. 1년 만에 이곳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감회가 새로웠다. 첫 출근이지만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편안함과 기대감으로 시작할 수 있었다. 서울지원에서 함께 인턴을 할 또 다른 학생이 있다는 것도 힘이 났다.

첫 날은 윤갑석 평가팀장님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가치체계와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다. 적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세심하게 가르쳐주신 팀장님 덕분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철저한 안전교육도 받았다. 팀장님, 과장님들 모두 안전을 강조하셔서 직접 현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실감났다.

쇠고기이력제 시료 채취 · 관리의 중요성 배워

나는 아침 8시까지 출근한다. (평가사분들의 일정에 맞게 7시까지 오면 더 좋겠지만 첫 차를 타고 와도 7시 반이라 아쉬웠다.) 출근하면 라벨지를 출력해 이력제 시료카드에 붙이고 시료채취 준비를 한다. 평가사분들 앞에서 시료 채취 방법도 배웠다. 시료를 땄 때는 도축번호와 함께 이력번호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다. 여기서 채취한 시료들이 이력제의 기본 데이터가 되며, 이 단계에서 잘못되면 이력제의 전 단계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채취한 시료는 번호대로 정리해 건조하고, 전날 채취 · 건조한 시료는 정리해서 본원 유전자분석팀에 보낸다. 도축되는 모든 국내산 한우 · 육우 · 젖소 전 두수에 대해 시료를 채취 · 보관하고 이력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쇠고기이력제에 자부심이 생겼다. 축평원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고 있어 축산물이력제에 대해 대략적으로는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시료 채취나 보관 요령에 대해 직접 보고 배우면서 DNA 동일성검사용 시료 관리의 중요성과 축산물이력제의 흐름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우품질평가대회와는 또 다른 현장 체험

소 도체 등급판정은 한우품질평가대회를 통해 자세히 공부한 적이 있다. 한우 도체에 대해서는 직접 등급판정을 해보기도 했다. 하지만 작년 대회 실습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전체적인 업무 흐름이다. 작년에 등급판정 기준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배웠지만, 여건상 이미 날인이 되어있는 도체에 대해서만 품질을 평가했었다. 지금은 최종판정 때 '등급판정 보조'로 현장에 함께 들어가 도체에 날인하는 것을 보고 등급판정 기록지를 비교해 체크한다. 최종판정은 합의판정을 거친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부분이다. 또 새롭게 배운 것은 '소 도체 결함'이다. 결함에 대해서 글과 사진으로만 공부했었는데 지금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그 날의 결함은 모두 사진을 찍어둔다. 결함의 종류에 따라 어떤 것은 주로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지, 어떤 특징을 보고 발견하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과제를 수행하며

서울지원 체험형 인턴을 담당하고 계신 박승필 과장님께서는 매주 과제를 내주신다. 처음에는 '2014 축산물 유통실태'의 내용을 공부해 보면서 PPT를 작성하라는 과제를 받았다. 책자를 통해 생산부터 출하, 유통까지 각 단계별 흐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축종별 축산 현황에 대해 찾아보고 보고서를 만들어 보라는 과제도 내주셨다. 사육·수급·가격동향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찾으면서 사육두수 및 도축두수와 가격과의 관계 등 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했던 축산의 현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번 체험형 인턴을 통해 인터넷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의 축평원이 아니라, 피부에 와 닿는 축평원의 조직문화와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직무에 대해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한우 품질평가대회에서의 짧은 경험에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알아가며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다.

등급판정과 이력제의 흐름, 축산 현황, 유통실태까지 한 달 동안에 배운 것이 많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두 시간에 걸쳐 출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 같고 즐거운 분위기 덕분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앞으로의 한 달도 새롭게 배워갈 것들이 기대된다. 같이 일하고 싶은, 준비된 축산 인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다짐해 본다. **동업견보³⁶⁵**